

음악감상실 '다락' 회원들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서울공연 관람기

# 현장서 느낀 클래식 감동 “브라보 브라보”

### 서울 클래식콘서트 투어 지역서 첫 시도

### 음악축제·교향악단 내한공연 관람 추진

폭풍같이 몰아치던 2악장, 한없이 서정적이던 4악장을 지나 피날레 5악장을 향해 달려가던 거장 파보 예르비의 지휘봉이 극적으로 멈췄다. ‘브라보’ 쏟아지는 환호성,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5번’ 연주는 명 불허전이었다.

계속되는 기립박수에 1시간이 넘는 대곡을 연주했음에도 파보 예르비와 단원들은 ‘헝가리 무곡’과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등 3곡의 앙코르를 들려줬다.

1부에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으로 공연장의 공기마저 장악했던 힐러리 한 역시 수많은 커튼콜에 바흐 ‘무반주 소나타 2번’ 중 3악장과 4악장을 연주, 관객들에 화답했다.

이날 감동의 현장에는 광주의 클래식 팬들도 함께했다. 대형버스를 빌려 ‘클래식 콘서트 투어’를 감행한 이들이었다.

아쉽게도 지역에서는 블루버스터 전시나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을 접하기가 어렵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미술관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클래식 공연 관람을 위한 ‘콘서트 투어’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셈이었다.

투어를 진행한 곳은 지난해 광주시 동구 학동에 문을 연 클래식 음악 전문 감상실 ‘다락’이다.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고,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투어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공연 후 감상을 쏟아냈다.

“CD나 DVD로 감상하던 음악과는 전혀 느낌이 달랐다. 혼자였으면 엄두를 못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말러의 음악은 늘 나의 중심이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공연을 봤고,

백한 감동을 느끼고 돌아간다.” “관객, 지휘자, 연주자가 음악으로 하나됨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

‘다락’이 콘서트 투어를 처음 기획한 건 초였다. DVD로만 감상하던 유수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시작이었다.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 버스를 빌리고 기획

“CD·DVD 감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 혼자였으면 엄두 못냈을 것 좋은 공연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

사와 연결해 티켓을 예매하고, 간식 거리와 저녁식사를 챙기고, 다들 처음 하는 일들이라 고생이 많았다. 지난 6일에는 다락에서 이날 공연의 레퍼토리를 미리 듣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연습을 하며 콘서트를 기다렸다.

이날 오후 2시 다락에서 출발하는 차량 안은 나들이가는 설레임이 가득했다. 예술의 전당 인근에서 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예술의 전당 합창석에 자리를 잡았다.

광주문화재단에 합창석이 없는 터라 무대 뒷편 합창석에서 공연을 관람한 회원들은 색다른 경험을 만끽했다.

이날 참가자는 모두 28명. 클래식 매니아들도 있었지만 다락 통해 클래식에 입문한 초보자들도 의외로 많았다. 부부·자매·친구 등 동료들과 ‘첫경험’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 참가 회비는 14만원선. 공연 티켓과 교통비, 식비 등을 생각하면 개인이 움직일 때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다. 티켓은 12만원 짜리 A석을 기획사에서 20% 할인해 구매했다.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회를 관람한 '다락' 회원들이 공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내한콘서트를 찾는 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선 다락 대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 운영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회원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락’은 클래식 강좌와 하우스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 등도 진행하고 있다. <http://cafe.daum.net/darakclassic/> 문의 062-226-4080.

/서울=김미경기자 mekim@



지휘 '파보 예르비'

무엇보다 콘서트가 반듯하게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연장과 광주를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해 준 게 큰 장점이었다.

다락측은 이번 투어를 시작으로 통영국제음악제 등 음악축제와 해외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16~25일 데미화랑 개관 기념전

## 유선태 '말과 글' 시리즈

광주 예술의 거리에 고품격 갤러리가 오픈한다.

데미화랑은 16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서 갤러리를 오픈하고 개관 기념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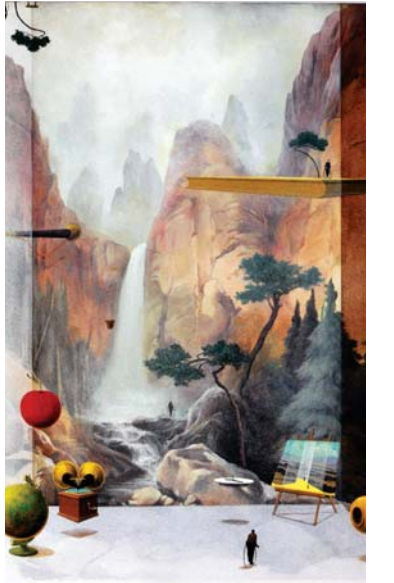
데미 화랑은 지난 1977년 '현대화랑'으로 광주에 문을 열고 오지호·임작순·최영일 등 중진 작가들의 개인전을 개최해 서양화 붐을 주도했다가 1984년 서울 인사동으로 이전했고 28년만에 다시 광주로 옮겨오게 됐다.

장삼열 대표는 “고향인 광주에서 능력있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 소개

하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지역 미술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전 개관 배경을 설명했다.

개관 기념전은 '말과 글' 시리즈로 잘 알려진 유선태씨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유씨는 칸딘스키·달리·마그리트·강희안·정선 등의 명작을 작품에 활용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작품마다 그려넣는 등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는 자전거로 세상 어딘가 찾아 나선던 호기심 많은 작가



'말과 글'

로서의 삶과 그가 담고 싶어하는 작가가적 소망을 엿볼 수 있는 작품 42점이 선보인다. 문의 070-4388-9505.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흠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조각가 김용우 개인전, 14~20일 무등갤러리

자연의 넉넉함이 묻어나는 흠을 사용해서일까.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작품 때문일까.

넉넉함과 따뜻함이 가득한 테라코타(흙으로 빚어 구워낸 조각) 작품들만 보아도 흠이 묻어나는 기분이 마려왔다.

조각가 김용우씨가 14일부터 2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무등갤러리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이뤄진 이번 전시에는 14번째 개인전 담겨 흠에 생명을 불어넣은 그의 노련함이 드러나는 작품들로 채워진다.

‘사랑해 아들’, ‘우리 가족’, ‘그 행복할 날에’ 등의 작품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현대인들의 고통을 말없이 보듬어주는 가족의 넉넉함이 묻어난다. 제작 전 과정에서 작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테라코타 특유의 제작방식에서 느낄 수 있는 작가의 섬세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엿볼 수 있다.

호남대와 조선대 대학원을 거쳐 지난 1991년 광주시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36-252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해 아들'

## 교사 30년... 실천적 삶 이야기

변길섭씨 첫번째 시집 '잡초를 뽑으면서' 펴내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교사인 변길섭(62·사진)씨가 첫 번째 시집인 '잡초를 뽑으면서'를 냈다. 30년 넘게 교사로 지내며 경험했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비롯, 힘든 현대 사회를 곳곳하게 살아온 주변 민중들에 대한 예찬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담담히 풀어냈다.

시집은 '잡초를 뽑으면서', '갈', '곰탕을 먹으면서', '새벽 봉헌' 등 4부로 나뉘어 일상에 대한 회고와

생명성, 자기 성찰, 교사와 종교인으로서의 실천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잡초를 뽑으면서'의 경우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잡초에 대한 관심을 깨뜨리면서 생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접근,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정년의 길목', '3학년 10반 팔방이 봄', '불거리', '사랑초' 등의 시



에는 정년을 앞둔 교사의 심정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허형만 시인은 서평에서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시는 생명력을 넘어 온몸으로의 실천에서 빛을 발한다”고 썼다.

변씨는 “지난 1978년 교사라는 직업에 몸을 담은 뒤 30년 넘게 지켜봐 온 학생들, 주변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경험, 자기 반성 등을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아일랜드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유스퀘어 2층 아일랜드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